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6. 26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6/19~6/23)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Fed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이어지며 위험선호 둔화된 영향으로 환율 상승하며 출발. 이어 미 금융시장은 노예해방일로 휴장한 가운데 일본 외환 당국 구두개입에 따른 달러 강제 제한,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에 소폭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앞둔 경계 심리와 국내 증시 부진 및 외국인 순매도 지속된 영향으로 상승 전환
- 후반, 파월 의장의 매파적 연설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그치면서 영향력 제한된 가운데 역외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상승. 이어 주 후반, BOE 50bp 금리 인상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이어짐에 따라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 강화된 측면 반영하며 큰 폭 상승 후 1,300원대 재진입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초,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에 따른 위험선호 후퇴 영향 등으로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이 다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 속에 경기 부양책에도 회복에 대한 실망감 등이 시장에 크게 팽배하면서 위안화 약세 움직임도 원화의 동조 약세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6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는 국면은 수급상 원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대외적 환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78.0	1,305.8	1,276.7	1,304.2	+26.2

예상거래범위

1,290원 ~ 1,315원



엔·유로화 동향 [6/19~6/23]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4월 경상수지 흑자 축소, 독일 5월 PPI 예상치 하회 등 경제지표 부진에 유로존 경기침체 리스크 확대된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 흐름 출발
- 중반 들어, 6월 FOMC 기초 재확인된 차원에 머무른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이후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ECB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매파적 발언 이어가면서 달러 대비 강세 전환
- 후반 들어, 주요국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된 영향으로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프랑스, 독일 6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모두 이전치 대비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둔화세 나타난 측면이 유로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 재차 자극하며 약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41	1.1011	1.0845	1.0894	-0.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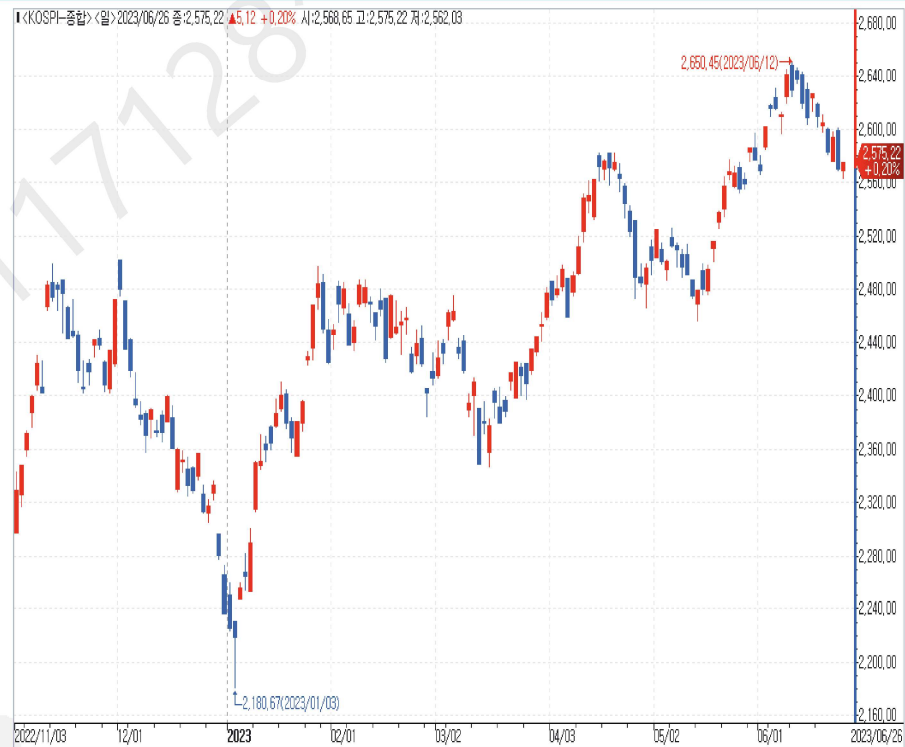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결정 후 지속되던 엔화 약세 흐름 제한되며 강세 출발
- 중반 들어, BOJ 4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 의사록 통해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YCC) 수정 필요성 없음을 강조한 정책 위원 발언 확인됨에 따라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일본은행 관계자가 경제회복 위한 금융완화 정책 유지 강조하는 등 비둘기파적 발언 이어진 영향으로 달러당 143엔 상회하며 큰 폭의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단행으로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됨에 따라 안전자산 수요 증가했음에도 차별화된 통화정책 영향으로 엔화 약세 흐름 지속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1.9	143.9	141.2	143.7	+1.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19~6/23)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한은의 물가설명회에서 국내 물가 상황이 호주, 캐나다 등과는 다르다는 총재 평가 등을 반영하며 하락 출발. 이어 중단기 금리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 영국이었으나, 중국 금리인하 소식 등을 소화하며 재차 하락 전환하는 모습 시현
- 중반 들어, 전일 뉴욕 채권시장을 반영 하락 움직임을 보였지만, 영국 무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폭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파월의장의 하원 연설이 예상보다 긴축적 매파로 분석된 가운데 영국의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매파적 인상 우려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진 양상. 주 후반, BOE의 매파적 빅스텝 영향과 파월의장의 하원에 이은 상원에서의 긴축적 금리인상 기조 재차 확인에 의한 매파 영향 반영되며 상승 추세 유지되는 가운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 파월의장의 의회발언에 대한 경계감 속에 아시아 증시 약세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하락 출발. 이어 FOMC이후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연이어 나온 가운데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데 따른 차익실현 니즈 강화 등으로 하락 지속 시현
- 중반 들어, 파월의장 연설에 대한 경계감 이어진 가운데 중국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도 부양 강도에 대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 등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 후반 들어, 기관의 매수 강화에 상승흐름 보였으나, 파월의장 연설이 추가 긴축을 예고하는 매파 성향을 보임에 따라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주 후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달아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 속에 연준 의장의 하원에 이은 상원 연설에서도 추가 긴축에 대해 재차 강조한 영향 등으로 2600선 하회하며 마감